



서른번째 이야기

첫발을 내딛고

[22-1 OBA 수련회 후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5)

8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은혜롭게 공부하고 흠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모여 OBA 수련회를 떠났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고, 제비뽑기로 짝꿍을 정하여 앉자 전세 버스가 출발하였다. 센스 있으신 운영자님들께서 휴게소에 정착하여 잠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따끈한 돈가스 와 잔치국수를 즐거운 담소와 함께 먹은 후 10분 거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해상 통로가 없어서 충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교가 늦어졌다고 한다. 김성수 목사님의 가이드로 처음 방문한 선교지는 충북 선교의 아버지 민노아(밀러) 선교사님이 일구신, 일신학교와 함께 어우러져 잘 보존된 양관 6채이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선교전략가, 건축가, 교육자, 한국

교회 찬송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 양관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청주에 전파된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다. 청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당시, 마을 사람이 경기도 죽산으로 행상을 갔다가 그곳에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고 돌아와 마을 주막에 교회를 만들었다. 이곳이 청주 최초의 교회인 신대리교회! 이곳에 파견된 민노아 목사 부부가 선교활동을 하며 양관을 짓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기거하다가 청주시 탑동 야산을 사들여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지었다. 벌목한 나무를 옮기는데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양관 건물은 붉은 벽돌을 쌓고 기와를 얹어 서양식과 전통식이 복합된 형태로 지어졌다.



그 당시 생전 처음 보는 서양식 건물, 꽃들로 가득한 정원, 양관을 잇는 구름다리를 손잡고 건너는 선교사 부부의 모습이 조선인들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초가집만 있던 청주시에 유리 창문과 양변기, 벽난로 등이 보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을 것

이다. 추운 겨울에 벽난로를 켜두었는데 조선인들이 문을 닫고 다니지 않자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이 난로가 청주시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위트있게 말씀하신 벽난로 일화가 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조선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묻어나는 일화인 것 같다. 양관은 선교사들의 거주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문맹인 성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배움터의 역할과 상담실로 사용되어 사람들로 붐볐다. 1914년에 건물 한 곳에 병원을 차리고 주민들을 진료하면서 청주의 양관 건물은 복음 전파와 교육선교, 의료선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1921년 설립된 청주성서신학원은 청주에서 3년간 선교하다가 29살의 젊은 나이로 떠난 부레선 선교사의 아내 에밀리 몽고메리가 미국에서 모금한 주일학교 성탄절 헌금으로 세운 건물이다. 현재 양관 6채 중 민노아 기념관, 포사이드 기념관, 노두 기념관, 소민 병원의 4채가 일신여고 내에 있다. 소열도 기념관은 청주 양관 중 유일하게 매각되어 개인 소유가 되었고, 부레선 목사 기념 성경학교는 청주성서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중앙 언덕에 자리 잡은 건물 포사이드 기념관 앞에는 세 개의 묘비와 한 개의 기념비가 서 있다. 민노아와 퍼디 선교사, 솔타우 선교사의 딸 그레이스의 묘이다. 민노아 기념관은 일신학교의 상담실 겸 교목실로 사용되고 있다. 1900년대 초 당시 이곳에 올라와 본 조선인들은 아름다운 꽃밭을 밟을 밧고 보면서 여기가 천당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서양 종교에 대해 배척이 심했던 시대, 일제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식민지 조선에 그들은 들어와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고, 외진 곳 청주까지 그리고 서양식과 조선식의 혼합건축물을 세운 뜻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인들이 무엇을 보고 깨닫기를

원했을까. 묘비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붉은 벽돌의 서양식 건축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잘 보존된 건물이 오래전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어서 그 마음까지도 읽어드리는 것 같다.

머나먼 미전도 지역에 첫발을 딛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까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감사한다.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신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고, 청주 땅에 세워진 양관의 모든 건축물이 후대에 아주 오래도록 잘 보존되어서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한다.

[글쓰기 소개 이문정 성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며,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그림], 얼마 전 24기 JDS를 수료 후 BEE를 알게 되어 온비아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

https://www.picturebook-illustration.com/san_kr/popup_gallery.asp?mem_id=enamuu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11월 26일(토) 2022년도 BEE Korea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BEE Korea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역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BEE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 모집!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일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Singer, 인도자 모집합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 바이블
김수경 작사

**내 속의 견고한 성벽이
요란하게 무너져내렸다**

10. 나dana엘
요한복음 1:43-51

나사렛은 기껏해야
서른 가구밖에 안 사는 작은 동네.
외지인 한 명 발걸음 않는
산골 낯선 중의 낯선이다.

그런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속에 거짓이 없다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미
날 보았다고 했다.

'무화과나무 아래...?'

우리 마을에는 회당이 없어
나는 어릴 적부터 쪽
동네 큰 무화과나무 밑에서
토라와 예언서를 공부했다.
철들고 나서는 메시아의 강림을
눈물로 기도해 왔다.

순간,
내 견고한 성벽이
속에서 요란하게 무너져내렸다.
그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내 삶이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틀 들었음을.

빌립은 늘 그런다.
성급하고, 사람을 금세 믿는다.
그가 달려와
성경이 애인한 분을 만났다면
아단병식이다.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치구니없는 말까지 한다.

요단강 수레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흥분한 빌립이 내 손을 잡아끌고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

그는 정말랐지만
잔 근육으로 다부졌고
눈빛은 고요했다.

기분이 되게 이상했다.
초면의 남자가 하는 그 말이
가슴에 날아와 쿠푼 박혔다.

그의 맑은 눈길에
내 온몸을 내사해 버린 듯한
이 묘하게 개운한 느낌은
대체 무슨 감각일까?

그런 나를 이미 보았다고...?
당신이?

그가 거만히 미소 지으며
내 속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